빨리·산스크리트 비구 교류 프로그램 '성료'

달라이라마 제안 개최
두 승가 간 교류 목적
성지순례 · 교육 등 다양

박영빈 객원기자


빨리-산스크리트 비구 교류에 참석한 스님들. 사진출처=주최 측 제공

부처님의 성도성지 보드가야에서 개최된 '제3차 빨리·산스크리트 국제 비구 교류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개최된 프로그램은 서로 중립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빨리·산스크리트'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진행된 행사는 빨리 전통의 남방 테라와다 불교 스님들과 산스크리트 전통의 대승불교 스님들이 서로의 문화와 교육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삼학설행사의 남카 스님이 전 일정에 참석했고 조계종 교육위원 금강 스님이 일부 일정에 참석했다.

프로그램 전반부는 보드가야에서 진행됐다. 빨리와 산스크리트 승가는 성도성지 마하보디사찰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와 기도, 명상을 함께하며 부처님 제자로서 동질감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티베트 불교의 위인 쫑카빠 대사의 열반일 '간댄응암최'를 기리는 기도회가 왓 타이 부다가야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두 승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사의 공덕을 찬탄하고 위업을 기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서양불자는 "테라와다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사찰에서 티베트 스승을 기리는 기도가 퍼지는 모습은 정말 깊은 감동을 줬다"며 "두 전통 승가가 화합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해 1월 1일에는 한국 삼학설행사 측이 두 승가의 80여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공양의 시작과 끝에서 각각 빨리어와 티베트어로 서로의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를 기원하는 기도도 이어졌다.

후반부 일정은 1월 5일부터 남인도 간댄사찰에서 이뤄졌다. 주로 산스크리트 승가가 빨리 승가에 강원교육체계, 수행지도방식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율장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과 논의에서 적극적인 참여율이 돋보였다. 한국 측에서는 승보종찰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연옥 스님과 전 총무국장 연광 스님이 동참했다.

연옥 스님은 "두 승가의 교류는 한국의 많은 스님들이 반기는 일"이라며 "남방불교계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전체 총괄을 맡았던 진빠갸초 달라이라마 사무국 비서는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리랑카, 태국, 티베트와 한국스님들 외에도 일본, 대만,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다양한 불교권에서 이미 다음 회차 프로그램 시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UC버클리, 불교경제학 기반 기후사회연구소 설립

불교 가치 · 경제 통합적 접근
'지속가능성' 중심 정책 개발


US버클리대의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US Berkeley)가 불교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기후사회연구소(Climate and Society Center)를 설립해 주목받고 있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1월 14일 버클리대 기후사회연구소 설립 소식을 전했다. 버클리대의 고용노동연구소(IRLE) 중심으로 설립된 기후사회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기후정책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사회연구소는 클레어 브라운(Clair Brown) 경제학 교수와 줄리아 월시(Julia Walsh) 공중보건학 교수가 이끈다. 이들은 기존 경제 체제의 한계점을 타계할 불교적 대안을 모색한다.

브라운 교수는 2017년 출간한 저서 〈불교경제학 : 침울한 학문에 대한 계몽적 접근〉을 통해 기존 GDP 중심 경제 성장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 지표로 △행복과 웰빙 △소득 분배의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경제를 단순한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이타심, 환경 존중이라는 가치에서 바라보는 접근으로 주목받았다.

브라운 교수는 "경제 체계는 공동체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불교경제학은 기후 위기와 복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나 폭스-호데스 IRLE 대변인은 "연구소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리치먼드시의 석탄 수출 중단 법안의 경제·환경적 영향 분석은 법안이 통과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새롭게 설립된 기후사회연구소의 활동 역시 기후정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연구소는 전 세계 경제 정책 사례를 전산화하는 작업 중이다. 뒤이어 환경 및 경제적 순이익을 분석해 입법 제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석유·가스 시설과 주거 지역 간 완충 구역 설정' 정책 분석을 첫 프로젝트로 다룬다.

버클리대 관계자는 "기후사회연구소는 탄소 배출 감소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기관과 협력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소 설립은 불교경제학의 원칙을 기후정책에 반영한 독창적 시도로 기후 변화와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타밀나두에 첫 불교박물관 설립된다

과거 불교사찰 부지에
촐라시대 불교유산 전시


타밀나두 첫 불교박물관이 들어설 부지. 사진출처=더 프린트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가 촐라시대(9~13세기) 불교유산이 모인 불교박물관을 나가파티남에 설립한다. 인도 매체 '더 프린트'는 1월 15일 나가파티남의 첫 불교박물관 설립 소식을 전했다.

나가파티남 불교박물관은 지역에서 발굴된 불상과 유물을 전시할 예정으로, 불교와 타밀나두의 역사적 연관성을 조명한다.

타밀나두 나가파티남은 불교의 주요 중심지였으나 16세기 이후 쇠퇴해 자취를 감췄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불상만 약 350점으로 일부는 런던과 독일 등 해외에 보관돼 있다.

타밀나두 주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가파티남에서 발굴된 불상 중 약 30점이 첸나이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이외에도 분산된 유물을 모으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나가파티남 불교박물관 설립을 제안했던 샤나바스 주의원은 2023년 고고학조사국(ASI)과 조사 작업을 통해 지역 내 19곳에서 불교유적을 확인했다.

그는 과거 불교사찰이었던 나가파티남 지방법원 복합 건물 부지를 박물관 부지로 제안하며 "해당 부지는 촐라시대 주요 불교사찰이었던 추다마니 비하라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물관 설립 계획은 올해 2~3월 중 예정된 주의회 예산 회기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계 관계자들은 나가파티남 불교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고향의 역사를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몽골불교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담

대담 後 유럽 불교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자브잔 도르지 스님. 사진출처=간단사찰 공식 페이스북

몽골불교 대표단이 로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담을 가졌다. 1월 17일 '바티칸 뉴스'는 대담 소식을 전하며 교황이 몽골불교의 부흥에 찬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몽골불교 대표단은 1월 13일 교황을 만나 종교의 자유, 바티칸과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몽골불교 총본산 간단사찰의 방장 자브잔 도르지 스님을 단장으로 해 몽골 가톨릭계 조르지오 마렌고 추기경과 동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9월 몽골을 방문해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교황이 됐다. 몽골불교 대표단의 방문 대담에서 교황은 "이번 만남을 통해 몽골 귀빈들과 가톨릭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교황은 "1990년대 이후 몽골불교계는 영적 전통을 되살리며 국가발전에 기여해 종교유산을 되찾고 성공적인 민주주의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며 상찬했다.

또한 교황은 "갈등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희년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라는 공동의 목표를 요구한다"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의 문화를 끌어안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브잔 도르지 스님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자유와 대화를 향한 노력은 평화와 진리를 추구하는 연대"라는 뜻에 공감하고 서로 간 우호적 관계 형성을 약속했다.

몽골불교 대표단은 로마 바티칸 방문 이후 유럽 각국의 종교학 연구소와 현지 몽골이민자 공동체, 불교공동체 등을 방문하며 학술·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